

흔들리는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⑦ - 중국

방혜정 (중국의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중국에도 예외없이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동관(东莞)시 최대 규모의 완구 회사의 하나인 허쥘 그룹(合俊集团)이 6천여 명의 실업자와 2,400만 위안의 체불임금을 정부에 떠넘기고 도산하면서 중국 사회에 이번 금융위기가 1997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연쇄 도산은 없다”는 정부 측의 반복적 발표와 달리, 이미 주강(珠三角: 광둥성 동부 연해) 지역의 농민공들은 예년보다 이르게 귀향 길에 오르고 있다. 주강 지역 중소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 주강지역 대표적 제조업체의 도산

1996년 설립된 허쥘 그룹은 이미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완구업계에서 지명도가 꽤 있는 홍콩 자산의 상장기업으로, 상품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2007년 9월 중국산 완구의 대규모 리콜 사건을 겪고도 신용 하락과 수출 감소의 위기를 극복했었던 허쥘 그룹의 도산은 이번 금융위기의 대중국 실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첫 사건이다. 중국은 세계 완구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광둥(广东)성이 중국 완구시장의 70%를, 동관시가 광둥성 완구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관총국이 10월 13일 발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3월에서 10월 사이 완구

수출 실적을 낸 중국 기업은 3,507개로 전년 대비 52.7%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 실적을 보인 완구 회사가 1,574개로 전년에 비해 3,631개가 줄어, 주로 소형 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되던 상황 속에서, 허진 그룹의 도산은 중국 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 연쇄도산의 물결은 아직 오지 않았다?

1978년 외국에 투자를 개방한 동관시에는 7천여 개의 의류공장, 3천여 개의 신발공장과 완구공장 및 산요, 히타치, 삼성 등의 가전제품 공장 등이 밀집해 있다. 아시아신발제조업상회(亚洲鞋业商会) 리펑(李鹏)에 따르면, 동관, 웨이저우(惠州), 광저우(广州) 등에 밀집해 있는 신발 제조업체가 5~6천 개이며, 이들이 생산하는 신발은 중국 전체의 1/4, 전 세계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 리펑은 2007년 한 해 동안 1천 여 중대형 신발 공장이 문을 닫았고, 특히, 웨이저우와 동관의 3천 여 신발 제조업체 중 4~5백 개 중소기업은 2~3개월 사이 줄지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동관경제무역국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구정 전후, 근로자 2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중 약 1만 2,000개가 도산하였고, 의류, 방직,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금속 및 비금속제품 등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홍콩 자본의 기업이 그 주류라고 분석했다.

허진 그룹의 도산 이후, 선전(深圳)시에서만 10월 17일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던 바이링다(百灵达)사가, 20일에는 이진리(宜进利)와 창이완구(创意玩具深圳有限公司)가, 21일에는 톱강항성전자공장(龙岗港声电子厂)과 시리시양의류공장(西丽西洋服装厂)이 문을 닫았다. 홍콩공업계입법회의원 량전엔(梁君彦)은 10월 중순에만 이미 50개의 홍콩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연말까지 1만 7,5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주강지역에 있는 약 7만의 전체 홍콩기업 중 그 1/4에 해당하며, 기업당 약 500명의 직원을 가정할 경우, 약 87만 5,000명의 근로자가 일터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동관외상투자협회(Dongguan Associa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에 따르면, 광저우(广州), 동관, 선전 세 도시의 4만 5,000여 개 공장 중 9,000개가 연말까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이는 약 270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부(中小企业司)가 8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서 6만 7,000개 규모 이하(상품 판매수익 500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광둥성 정부는 허진 그룹 도산의 원인을 방만한 경영과 수재 등에서 찾으면서도, 10월 22일 경제 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청, 재정청 등 관련 부서들이 합동 편성한 특별조사반을 주장강 지역에 파견하여 긴급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중앙정치국 리창춘(李长春) 상무위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허구어창(贺国强) 서기 등이 연달아 광둥성 시찰을 감행하면서, 중국 중소기업 연쇄도산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주장지역 제조업의 예고된 위기

“동관에서 선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면, 전 세계 컴퓨터 부속품의 70%가 부족하다”는 농담에 걸맞게, 광둥 지역의 제조업은 중국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광둥 지역은 1990년 이래 연속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많은 전문가들의 예언처럼, 2008년 현재 이들 제조업체는 이미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 들어서 있다. 동관 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차이강(蔡康) 부국장은 이 과정이 5~10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저임금, 저이윤에 의지하여 생존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위기는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중국기업의 파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 역사상 최고의 8,939건에 달했다. 그 이듬해부터 2006년까지는 2,84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다시 3,207건으로 전년대비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관의 외자완구기업을 예로 들면, 2005년 639개였던 완구업체가, 2006년에는 630개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500여 개로 줄어들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광둥성의 GDP 증가는 10.2%, 대외수출 증가는 10%정도에 머무를 전망이고, 이는 전년대비 각각 4.5%와 12.3%가 하락한 것이다. 또한, 광둥성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대 광둥성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7월에 비해 5.3% 감소하였고, 새로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투자금액은 1,704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감소했으며 이는 연속 4개월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공황과 기업이전

2004년 3월부터 제혁, 완구, 의류 등 광둥성의 노동력 밀집형 기업에서 일반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민공황(民工荒)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광둥성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약 100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강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두 배 이상이면서, 노동보호상태가 비교적 좋은 장강(长三角 : 상하이, 장수(江苏)성 동남부, 저장(浙江)성 동북부) 지역으로 근로자들이 이동하였고, 동시에 중국 서북지역과 환발해경제구역(环渤海 : 중국 북부 랴오닝(辽宁)성과 산둥(山东)성의 단둥(丹东), 다롄(大连),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등 주요 16개 도시)의 개발이 진전되면서, 주강지역 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자 감소 현상을 겪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주강 지역의 기업 중 신발 공장을 예로 들면, 2004년 8월 이들 중 50~60%가 생산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원자재, 임금, 세금의 상승 압력하에서도, 2001년 2만 개였던 중국의 신발 공장은 2006년 3만 여 개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악성경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신발 공장의 80%가 5~8%의 이윤율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즈음, 근로계약법과 환경보호세 등에 관한 법제가 준비되면서, 기업들의 주강 지역 탈출은 심화되었다. 2007년 3/4분기까지 광둥성의 약 1,000여 개 신발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대만 자본의 업체들이었다. 아시아신발제조업상회의 통계에 따르면, 문을 닫은 신발 공장의 25%가 동남아의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로, 50%가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시(广西) 등의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였다. 상무부는 2010년까지 광둥, 상하이, 저장, 푸젠 등 4개 성에서 중서부로 이전하는 산업의 가치가 대략 14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장강지역 제조업 위기 파급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장강 지역의 제조업에 대한 잠재적 위기설은 2007년 푸단(复旦)대, 홍콩대, 난징(南京)대 등이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주장되었다. 장강 지역 제조업을 겨냥한 이들의 샘플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장강 지역 기업 중 단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에 의한 제품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기업이 전체의 22.3%,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조자 디자인 생산) 기업은 전체의 18.3%에 불과하다. 연구조사는 장강 지역 제조업의 이러한 형식의 번영은 미래의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제조업 전체에 큰 잠재적 위

힘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이 시작되면서, 저장성 민영 기업들의 수출 하락과 자금난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저장성 타이저우(台州市)시 세계적 재봉틀기계기업 페이위예(佩伟)사의 1~4월까지의 수출 총액은 44%의 감소를 보였고, 14개 자회사를 가진 이우(义乌)시 진우(金乌) 그룹 회장이 20억 위안의 부채를 남기고 도주하였다. 저장성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5월까지 적자경영을 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이 전체의 19.6%인 1만 700여 개이며, 윈저우(温州市)시 20%의 중소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반 중단한 상태이다.

심각하게 파급되던 저장성 중소기업 대량도산설에 대한 대응으로, 저장성공업회 쉬관취(徐冠巨) 회장은 결국 8월 11일 “저장성민영경제창업장신의 길”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장성의 경제상황은 대체적으로 평온하며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쉬회장은 저장성에 위치한 규모 이상의 기업은 2007년 4만 5,900개에서 2008년 5만 1,400개로 증가를 보였으며, 규모 이하의 기업은 2008년 6월 말 현재 78만 5,000개라고 밝혔다. 10월16일 저장성 천민얼(陈敏尔) 상무부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장에서, 저장성은 2008년 상반기 11.4%의 GDP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민영기업이 전체 GDP의 70%, 세금의 60%, 수출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90%의 신규 취업이 모두 민영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내외적 환경 압력 교차 가중

아시아신발제조업상회는 원자재값 상승, 인민폐의 평가절상, 고용비용 증가 및 환경보호와 수출 환급금 관련 정책의 변화가 현재 주강지역 기업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국무원에 보고했다. 중국 은행 동관시 지점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 한해 인민폐의 평가절상은 광둥성 일반수출에 524억 5,000만 위안의 손해를 가져왔고, 이 중 사영기업의 손해는 253억 4,000만 위안에 달한다. 상무부 연구원의 대략적 계산에 따르면, 세계적 불경기로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1,00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15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광둥성 95%의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자금부족분이 1억 2,000만 위안에 이른다.

2007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일부 상품의 수출환급금을 조정하였다. 7월 23일 가공무역한계상

품목록(加工貿易限制類商品目錄)이 발표되어 방직, 가구 등 1,853개 수출가공제품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12월 말에는 159개 품목이 가공무역금지품목으로 추가 발표되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관련 노동법제, 특히, 근로계약법의 실시로 평균임금과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승하고, 공장폐쇄 및 이전, 감원 등에 의한 보상금도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9월 19일 근로계약실시조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26개 성의 상반기 근로계약 체결률이 90~96%에 이르며, 전체 사회보험 가입근로자가 전년대비 31%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홍콩공업총회는 주장 지역 홍콩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2008년 1월 현재 전체 홍콩 기업의 37.3%가 전부 혹은 부분이전을 계획 중이며, 63% 이상의 기업이 광둥성에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2006~2007년 선전에서 이전해 나간 기업을 상대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장 임대비용의 증가 등 부지 수요에 대한 불만이 57.8%, 임금, 복지, 보험 관련 비용 상승이 5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둥성은 최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염의 위험이 큰 기업들을 주장 지역 밖으로 이전시키는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면서, 점차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전 세계의 질의, 기업의 장기적인 방만 경영과 기술경쟁에서의 도태는 결국 수출의 길을 스스로 막게 된다. 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여, 자원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더욱 강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인 산업구조 개편은 주장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핵심적인 단계이다. 내외적 환경변화에 모두 취약한 주장 지역 제조업체가 이러한 관건적인 시기에 맞게 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일렁이는 농민공의 귀향 물결

후베이(湖北)성은 농민공수가 750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 노동력 공급 지역으로, 올해 9~10월 두 달 동안 되돌아온 농민공의 수가 거의 30만 명에 이른다. 주장강 지역의 불경기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성 내에서 철강, 자동차, 방직, 건축 등의 발전으로 50만 이상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480만 명의 농민공을 타 지역에 보내고 있는 장시(江西)성 역시 최근 부족한 20만 명의 일손이 채워지고 있다. 각 성은 귀향한 농민공을 해당 지역 공업지대에 취업시키거나, 직업훈련

과 소액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 마련으로 분주하다.

허진그룹 등의 도산 이후, 선전시 노동보장국은 쓰촨(四川), 간수(甘肃), 후난(湖南), 후베이 등 11개 성과 도시로 귀향한 농민공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11월 4일 농민공의 취업안정을 위한 긴급통지(关于积极稳妥做好我市农民工稳定就业工作的紧急通知)를 발표하였다. 통지에서 최근 기업의 도산과 감원에 따른 노사분쟁이 상승 추세임을 인정하고, 기업의 어려움에 미리 개입하여 기업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이 중국 전체 취업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사회보장연구실 왕더원(王德文) 주임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 노동력 밀집형 기업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이 기업들의 도산은 노동시장의 중하층 근로자들의 실업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농민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공이 실업인구 통계에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제조업 취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예측된다. 농업부의 8월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농촌에서 도시로 나간 취업인구가 1억 2,600만 명에 이르고, 도시기업근로자는 1억 5,000만 명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하면, 대략 전체 농민공 수는 2억 2,600만 명에 이른다. 중국의 기존 일자리 중 75%와 새로 증가하는 일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근로자의 60%에 해당하는 농민공의 실업 문제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 중국 정부 대책 마련으로 부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부장은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주장강 지역 일부 기업 도산과 감원 문제로 농민공이 귀향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 취업형태는 안정적이며, 경제 상황이 아직 취업, 사회보장, 노사관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 농민공의 대량 귀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발전 속도가 느려져 취업에 대한 동력이 감소되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 특히 노동력 밀집형 기업 경영이 비교적 힘든 상황이며, 일부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우선이 정책의 핵심

국무원은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중국의 취업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에서 10월 이후 새로 증가된 일자리는 8%로 9월까지 매월 약 9%의 증가를 보이던 데 비해 소폭 줄어들었고, 3/4분기 이후 기업의 노동력 수요는 5.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1~10월까지의 중국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도시에서 새로 증가된 일자리가 1,020만,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450만 명, 취업곤란층의 취업이 129만 건으로 각각 2008년도 목표를 모두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원은 10월 이후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취업 증가와 효과적인 실업 통제를 위해, 4대 실업조절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현재 생산 정지 혹은 반정지 상태의 기업을 도와, 악의적 실업을 방지하여 전체 실업률을 줄인다.
- 취업확대와 내수확장을 연결하여, 경영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의 취업을 확대하도록 한다.
-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실업자, 취업곤란계층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취업을 중점적으로 돕는 동시에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을 돕는다.
- 전 사회조직이 대규모 직업훈련을 개진하여, 근로자는 취업능력과 소질을 제고하고, 실업자는 적극적인 취업준비를 갖추어, 사회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긴급 수혈

광둥성은 이미 2003년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고 5년 동안 매년 2억 위안씩 투입하여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을 지원하였다. 올해 금융위기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대두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3년간 매년 1억 8,000만 위안의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투입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중앙은행은 10월 23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서비스체계 발전, 농촌은행, 소액 대출회사, 대부기업, 농촌자금 상호대출 기업 등의 발전 계획과 중소기업 자금 유도수단과 신용대출 상품개발, 중소기업 등급발표 제도와 신용정보 제도 설립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관련부처와 ‘국가중소기업은행’의 설립을 연구 중이며, 중소기업의 납세 규모 기준을 종전의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10월 21일 일부상품수출환급금제도에 관한 통지(关于提高部分商品出口退税率的通知)를 통해 방직, 의류, 완구 수출환급금을 14%로 높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1월 1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지를 통해, 현재 경제상황과 기업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각지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잠시 늦추도록 하고, 사회보험기금이 비교적 넉넉한 지역의 경우,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의 일차 납입금을 일정기간 동안 낮춰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由于用工不稳定, 不会一步到位 :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근로계약법을 단번에 실행할 수 없다)

■ 내년이 더 힘들다

올 연말과 내년의 경제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양상이다. 2008년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는 역대 최대인 559만 명이고, 내년에는 다시 기록을 갱신하여 6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체들의 이전과 철수 등은 지속될 것이다. 올해 7월 중국에 264개의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나이키, Clacks, K-Swiss 등 굵직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제조업체들이 올해 해결한 주문서들은 모두 작년에 체결된 것으로, 금년의 금융위기가 가져온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직격탄은 내년에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홍콩공업회에 따르면, 동관시가 올해 받은 주문서는 작년에 비해 20~30% 감소를 보였다.

또한 방직, 철강, 조선, 완구 및 소상품 제조업체 외에도, 부동산, 항공, 석유화학, 전력 등의 산업에도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다. 난팡항공(南方航空)과 중국석유 등이 이미 임금 삭감과 감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외자은행들과 지명도 있는 증권회사 등이 20%의 임금 삭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IT업체에도 10% 감원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 주장지역의 근본적 환골탈태 필요

주장지역은 가공제조업체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9개 도시(선전, 포산(佛山), 주하이(珠海), 웨이저우, 동관, 종산(中山), 장먼(江门), 자오칭(肇庆), 칭위안(清远))을 일컬으며, 이들이 광둥 지역 GDP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제조업경쟁력연구 2007~2008년 조사보고에 의하면, 조사 대상 50% 이상의 기업이 중국은 기타 저비용 국가와 비교할 때 현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광둥성은 현 제조업의 위기를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승격의 기회로 삼아 기술발전, 공업화 진전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장 지역의 정비와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둥성 사회과학원은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각부 전문가 및 학자 200여 명이 주장지역개혁발전계획강요(珠三角地区改革发展规划纲要)를 마련하여 연말경 ‘국가전략’으로 정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계획에서는 정부가 전국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주장 지역에 명확한 정책과 발전 공간을 허용하여, 각급 정부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주장 지역 시장일체화를 이룬다는 것이 중점 내용이다.

또한, 생산기지에서 경제중심지로의 변신을 위해, 주장 지역 각 도시의 기본적인 지위를 지정하여, 선전은 과학기술발전기지, 광저우는 대형장비제조업중심지, 웨이저우는 에너지 및 석유화학기지, 동관은 선진제조업중심지, 포산은 세라믹장비제조업, 물류, 국제회의 및 전람, 연구발전센터 등 현대 서비스 중심지로 각각 특성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맺음말

경쟁력 없는 기업의 자연 도태와 산업구조조정에는 성장통이 따른다. 성장통은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취업 문제에 압력을 가하지만, 기업은 한편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시장개발노력과 기술발전을 통해, 주동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조 위안을 투입하여 사회기반설비와 사회복지체제 건설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2009년 정부 예산에 4천억 위안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분석과 예상 속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한 시장 자극과 성장통 완화를 노리고 있다. **KLI**